

사회



17일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 여객선터미널. 고흥~완도를 오가는 여객선(차도선)에 주차하려던 진모씨의 매그너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한 후 고흥경찰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보성소방서 제공>

카페리 승하차 안전대책 허술

고흥 녹동항서 승선 차량 바다 추락 2명 숨져

국과수 차량감식 ... 주차 요원 수칙 준수 등 수사

고흥의 한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차도선)에 주차하려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졌다. 특히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선박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오전 9시15분께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진모(63)씨의 매그너스 승용차가 115급 평화페리3호에 주차하던 중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진씨와 동승자 진모(75)씨가 숨졌다. 진씨 등은 이

날 완도를 금일도에서 시제를 지내기 위해 차량을 타고 배에 오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평화호에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요원 이모(51)씨의 지시에 따라 선박에서 후진하던 중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갑자기 앞으로 돌진,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이씨 등 평화호 소속 주차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평음과 함께 갑자기 후진과 전진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육지와 선박을 이어주는 램프의 너비가 8m에 이르고, 부두와 연결된 접안시설의 경사면이 5도 정도도 완만하다는 점에서 차량 급발진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인양 당시 기어 후진 상태였던 점과 핸드 브레이크가 잠겨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배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 분석을 통해 주차요원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평화호는 하루 평균 4차례 녹동항

에서 완도 금일도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다. 최대 승선인원은 90명이며, 차량 18대(승용차 기준)를 주차할 수 있다. 고흥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근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해안에서는 작은 실수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회사나 이송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j@

이승만 前대통령 유족 4·19 희생자에 사죄

51년만에 처음 ... 광주·전남 4·19단체들 "환영"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오는 19일 4·19 혁명 당시 숨진 학생 유족에게 공식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의 4·19혁명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는 17일 "반세기 가 흘러서야 이 전 대통령 유족에게서 사과가 나온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아직 사과성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사)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와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오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헌화하고 당시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학생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와 이 전 대통령 유족의 4·19 묘역 참배와 사죄 성명 발표는 4·19 혁명이 일어난 1960년 이후 51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유족들은 그간 기념사

업회 측에 꾸준히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업회 내부 의견이 갈려 이뤄지지 않았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이번 사죄 성명 발표는 지난 2월 기념사업회장으로 취임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과 이인수 박사의 의지로 결정됐다. 기념사업회는 "정부의 잘못으로 희생된 학생들과 유족에게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면서 당시 잘못을 반성교사로 삼아 앞으로 4·19 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4·19 혁명은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대통령선거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 실시되자 전국에서 이를 규탄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 중심이 돼 시위를 벌였던 항쟁. 광주는 4·19혁명의 3대 발상지로 4월 19일 광주고를 중심으로 시내 10개 학교 고등학생과 시민 3만여명이 이날 거리로 쏟아져 시위했으며 7명이 희생당하고 수 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나원침 (8294) 김종두



승적부 위조 의혹 자승 스님 무혐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 의혹이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 검사)는 승적부 위조 의혹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승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자승 스님은 2009년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어려서 불미스러운 과거 경력을 빼고 승적부에 수계일을 허위 기재하는 등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작년 9월 고발됐다. 검찰은 자승 스님의 승적부 사본이나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 등을 추가 확보해 의혹을 재검토한 결과 이력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후보자가 임의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수계일은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된 점 등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건설사 법인통장서 1억원 빼가

사무실 보관 통장 도난 ... 목포 모 은행서 인출

광주의 한 건설회사 법인통장에서 누군가 1억원이 넘는 예금을 인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구 소재 건설회사 대표(52)로부터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법인통장이 사라지고, 예금돼 있던 현금 1억 1000만원이 누군가에 의해 인출됐다"는 신고가 지난 14일 접수됐다.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175cm가량의 키에 양복 차림을 한 남성이 목포시 교동 모 은행 지점에서 위조한 도장을 들고 와 찾았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40~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누구이며, 어떤 경로로 건설회사 사무실 서랍에 들어있던 통장을

개내갔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은 통장이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난 11일부터 뜬이 인출된 14일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한 뒤 이 남성에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사무실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은행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건설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함평군 폭설복구비 부담 지원

경찰, 관련 공무원 소환 검토

대가성 확인땀 형사처벌
함평군이 폭설 복구비를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일부 농가에 지급했다는 광주일보 보도와 관련해 내사에 들어간 경찰(4월 14일 6면)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함평경찰은 "지난 겨울 함평군의 폭설 복구비 부담 지원과 관련해 군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원

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 이외의 폭설 복구비 부담 지원이 더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배정을 밝혀내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군청이나 각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고의 또는 대가를 받고 폭설 복구비를 지원했을 경우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

다. 또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 형식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함평군이 부담하게 폭설 복구비를 지원한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라며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금품 등이 오갔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겨울 폭설로 무너진 농·축산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정부 지침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과 농업을 겸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해 물의를 빚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장애인 성폭행 살해 군산경찰, 40대 검거

군산경찰은 17일 지체장애인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군산시 서수면에 있는 모친의 집에 들렀다가 이웃에 혼자 있는 이모(45·지체장애 1급)씨의 집에 침입, 이씨를 성폭행하고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후 모친의 집에 숨어 있다 붙잡혔으며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우유주머니에 집 열쇠 ... 빈집털이 10대 3명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17일 우유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오모(16·광주 모고교 1년)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군 등은 지난 5일 오후 4시에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모 아파트 유모(여·38)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이를 통한 4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낮 시간 아

파트 고층부터 아래층까지 우유 주머니를 뒤지고 복도식 아파트는 창틀을 삼켜 열쇠가 놓인 집문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 지역 금은방에서 어린 학생들이 고가의 금품을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 CC-TV 화면 분석 등을 토대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오군 등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의출 시 노출된 곳에 열쇠를 두면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버스 열자리 승객 몸 더듬더듬

○-달리는 버스 안에서 열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를 더듬은 40대가 터미널 도착과 함께 경찰서행.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50분께 목포에서 광주를 향해 출발한 지행버스에서 열자리의 운모(여·53)씨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 ○-다른 승객에게 들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팔뚝으로 운씨의 다리를 가린 채 못된 짓을 벌이던 김씨는 운씨의 신고를 받고 광주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연행.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